



푸코의 성담론을 비판한다

성인경

세상은 지금 한바탕 성 축제 마당입니다. 각종 신문과 영화, 연극, 방송 등은 날이면 날마다 성을 상품화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가고 있고 성을 팔지 않으면 장사도 방송도 정치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스포츠신문은 아예 도색잡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 전체가 음란해지는데는 거기에 분명히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푸코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의 [L'histoire de la sexualité, 성의 역사]¹⁾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짚어보고 난 후에 사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에서 몇 가지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 역사의 저술 목적과 의미]

푸코의 [성의 역사]는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적 행동과 실천에 대한 과거 역사를 연구하거나 그것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적 행동들이 표현되어온 그 배후의 사상적 혹은 종교적 의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술의 근본 목적은, 푸코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현대 서구 사회에서 한 개인이 스스로를 성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는 경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²⁾입니다. 즉 성을 통해 자기 자신의 윤리적 행위의 주체로서 나서게 된 역사를 3권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의 의지에서 성은 ‘모든 것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제1권 [앞의 의지]에서, 푸코는 “성은 모든 것의 이유”라고 주장합니다.³⁾ 즉 앞의 의지를 촉발시키는 근본 원인은 성적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 욕망은 권력의 메카니즘과 관계가 있으며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 권력과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 개방된 전략들, 합리적 기술들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행위의 역사를 더듬어 봅니다. 푸코는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성담론의 솔직함이나 추잡함이나 그 뻔뻔스러움이 매우 관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7세기부터 기독교적 경건주의 운동이 거세게 불었는데, 그 결과 도덕적 엄격주의가 지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푸코는 그 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일체의 성적 행위는 ‘금지’, ‘비 실재(非實在)’, ‘침묵’이라는 3종의 범령으로 억압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면서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권력의 메카니즘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의 쾌락을 억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자본주의가 노동력 재생산이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일부일처 가족제도, 이성애적 성, 인구정책 등을 통하여 교묘하게 성을 억압하였다고 합니다. 20세기 서양 역사를 주물렀던 파시즘, 신보수주의, 민족주의 등도 알고 보면 각종 성적 장치들을 동원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결과로 성에 대한 불필요한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도록 되었지만, 오히려 삶의 의지가 성적 욕망을 과학화하고 성담론이 증대하고 성적 욕망을 확산시켰다고 말합니다. 결국 성담론을 증가시킨 것은 기독교의 성의 죄악시, 작가들에 의한 개인적 쾌락의 체계화, 경제적 정치적 필요에 의한 생식권장, 18-19세기의 신경질환이나 정신병학 등이라고 보았습니다. [삶의 의지]에서 푸코가 의도한 것은 기존의 성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지식과 관행을 비웃고, 성을 둘러싸고 작동하고 있는 강력한 권력의 메카니즘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쾌락의 활용]과 [자기에의 배려는 욕망의 계보학입니다. 제2, 3권은 성의 권력관계보다는 성의 윤리관계에 집착합니다. 그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윤리의 계보학” 혹은 “욕망의 계보학”이라 불렀는데, 이런 계보학(geneology)은 그의 방대한 철학적 작업의 3대 명제인 진리, 권력, 윤리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쾌락의 활용]⁴⁾은 욕망의 계보학의 핵심적인 서술이며 주로 기원 전 4세기경의 문헌들에 의존합니다. [자기에의 배려]⁵⁾는 주로 기원 후 2세기경의 문헌들에 의존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쾌락의 활용]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크세노폰의 사상에 의지하지만, [자기에의 배려는] 스토아 철학자 및 쾌락주의자들로 알려진 에피쿠레스 철학자들의 문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푸코는 [쾌락의 활용]에서 성행위라는 쾌락(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쾌락)에 대한 자기와의 관계가 취하는 양식이 어떤 것인가를 탐구합니다. 자기와의 양식은 크게 네 가지 주제와 관계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즉 윤리적인 실체를 분석하는 것, 도덕적 규약과의 복종의 양식을 취하는 것, 금욕의 수단을 통한 자기 실천을 행하는 것, 도덕적 목적을 가진 존재의 종류를 규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푸코는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쾌락이 사회 체제에서 합법성을 가지면서도, 즉 주체적인 자기 결정과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절제와 긴장의 원천이 되는가를 끈질기게 분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쾌락을 활용하는 기술, 즉 성적 행동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양생술(건강, 육체), 가정관리술(아내, 여자), 연애술(소년애, 동성애) 등에 관련된 규약을 연구합니다. 양생술은 성행위의 적절하고 절도 있는 활용을 통해 절제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하물며 성행위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시기, 횟수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⁶⁾

가정관리술에서는 고대 사회가 남녀의 불평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인정하고 남편이 가진 특권에 의해 가정에 고유한 계급 조직이 유지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합법적 아내와의 성 관계는 남편의 권력 행사라는 것을 보여주며, 쾌락이 결혼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 밖에도 그는 매춘, 간통, 동성애 등을 합법적인 쾌락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제안합니다. 연애술에서는 남녀간의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⁷⁾

[자기에의 배려는] [쾌락의 활용]에 대한 보완적인 책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1, 2세기 경의 강력한 쾌락불신 태도, 즉 쾌락이 지나치면 신체와 영혼 모두에 해롭다는 주장을 발견하고는 절제의 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절제를 말하면서도 일탈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푸코는 에베소의 해몽

가 아르테미도르를 길게 소개하는데, 그는 아내, 애인, 창녀, 혹은 수음(手淫) 행위와 같은 것이 꿈에 보이는 것을 성적 욕망의 어떤 메카니즘으로 해석하려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수음하는 꿈을 꾸면 그것은 '주인과의 동성애를 하리라'는 예고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⁸⁾

푸코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다룬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1)반프로이드적인 아르테미도르를 통해 섹스 꿈을 이미지의 궁극적 '기의(signifie)'로 파악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조짐의 '기표(signifiant)'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거나, 2)성적 행위를 꿈꾼다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혹은 경제적 위치 변동과 연결시켜 성욕을 사회적 관계와 깊숙이 연계된 것으로 파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⁹⁾

거팅(Gary Gutting)이 잘 지적했듯이, 푸코는 최신판 지적 속임수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센 강의 흔해 빠진 마술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사상사적 논의들은 20세기 철학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발상이며 그를 따르는 후학들에게 많은 도전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가 던지는 역사에 있어서의 인간의 주체성과의 관계, 역사 비판의 사회 개혁에 대한 역할, 비 이성과 진리의 상실과 자유 문제 등은 그의 학문적 공헌이기도 하며 도전입니다.¹⁰⁾ 푸코가 "니체를 이어 타자의 자유를 전개한 대표적인 철학자"로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¹¹⁾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성은 권력의 작용으로부터 해방?

푸코에 의하면 "성행위란 생존의 미학과 권력의 작용으로 인식된 자유의 심사숙고된 기술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다"¹²⁾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행위의 도덕적 주체로 구성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¹³⁾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푸코가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란 성은 개인의 주체적인 행위로서 국가나 교회나 관습이나 할 것 없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개인적인 활용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니체가 말하는 "권력에의 의지"이며 신체적 주체 행위입니다.

이것은 니체나 푸코가 주장하는 신체적 주체를 성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특히 푸코의 끈질긴 관심은 인간을 권력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인데, [성의 역사]에서도 권력의 희생물이 되었던 성을 권력의 메카니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시켜 자신의 성적 행동에 어떠한 의무적인 규범이나 획일적인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주체적 윤리 행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체'란 일반적으로 각자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배 권력에 의해 '주체는 죽었다'고 보았던 푸코가 주체 논의를 들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르키오르(J.G.Merquior)의 해석을 들어봅시다. "여태까지 푸코는 주체를 형이상학적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경멸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했고, 주체는 사회 과정의 설명을 위한 분석적 도구로는 쓸모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다. 그런데 [성의 역사]에서 푸코는 주체성을 내세워 지금까지 사회 속에서 절대적인 범주를 형성하고 있었던 성담론을 철저하게 상대화(相對化)하면서 주체적인 윤리의식 혹은 주체적인 자율의지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체를 무대에 등장시켰다."¹⁴⁾ 푸코의 처음 권력관에는 지배의 기술 개념이 짙었으나 여기서부터는 윤리적 자아형성의 기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윤희중은 그것을 "사목적(司牧的) 권력"¹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물론 그가 주체로 상대화시키고 해체하고자 했던 범주는 알고 보면 기독교의 절대적인 성담론이었습니다. 절대적이고 단일한 담론이 해체하고 나면 결국 다양성의 원칙 혹은 다가성(多價性)의 원

척이 전략적으로 필요해 집니다. 결국 푸코가 윤리적 주체로서의 자아론과 성의 다가성의 원칙으로 노렸던 것은 혼전 성 관계, 혼외 관계, 동성애, 매춘 등을 정당화하고 객관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쾌락의 활용을 이야기 하다가 결혼밖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무차별한 성행위까지도 “금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¹⁶⁾고 말했습니다. 거탕이 지적했듯이, 그것은 비록 진리는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소망을 던져주는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체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역행해서는 안됩니다. 즉 동성애가 주체적인 성행위의 하나일지는 몰라도 이성애적 일부일처 가족제도 안에서의 성생활이라는 순리에 반하는 역리(逆理, disorder)이기 때문에 옳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푸코식의 주체성의 윤리나 다가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이 불일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로마서1:26-27)

동성애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다?

흔히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호소력 있는 주장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유전적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성(異性)보다는 동성(同性)에 끌리는 유전학적 요소를 체내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론적 요인, 즉 과거의 상처나 환경으로 인한 이성애(異性愛)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정적 혹은 환경적 배경으로 인해 이성보다는 동성에게 호감과 안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강력한 논의는 동성애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갖는 권력 행사의 결과이자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다분히 개인적인 성적 취향 혹은 기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를 이념적 원인 혹은 인권적 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푸코를 따라서 기존의 일부일처 가족제도나 사회 통념은 철저하게 권력의 메카니즘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私的)인 성은 하나의 강요된 환상에 불과하며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 해방은 성의 공(公)과 사(私)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찍이 푸코는 동성애가 성을 둘러싼 이러한 권력의 메카니즘 때문에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동성애는 인간 윤리의 주체적 행위이며 동시에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심리학이나 의학적으로 말하면, 동성애는 “개인의 성격적인 것”으로 보고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¹⁷⁾ 그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강간까지도 가능하며 정당한 대가가 지불된다면 매춘도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푸코의 광기 어린 뒤틀린 인식론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책 마지막의 ‘새로운 연애술’에서 메넬라스의 말을 들어 다음과 같이 남자들의 동성애를 미화하기도 합니다. “남자들과의 그것은 여자들과의 입맞춤처럼 세련되거나 부드럽지도 방탕하지도 않은, 기술이 아니라 자연에서 우리나는 입맞춤, 결빙되고 입술이 된 신의 술, 그것이 체육관에서 나눈 단순한 입맞춤이다”¹⁸⁾

푸코가 이성애적 사랑을 기독교나 자본주의가 정치 경제적인 목적으로 정당화시켰다는 것은 크게 잘못 본 것입니다. 부부간의 이성애적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존재론적인 자아상의 자연적인 표현입니다. 즉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나며,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동등하지만 신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합이기 때문에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맥네이(Lois McNay)는 “푸코의 문제는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무시한 것이다”¹⁹⁾고 했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푸코는 이성애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거짓된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들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은 푸코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철학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으며 동성애를 통해 가장 빨리 전염된다고 알려진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으로 1984년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푸코의 이러한 동성애적 성담론은 그 자신의 어긋난 성행위의 철학화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이 동성애자로서 겪었던 사회적인 멸시를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학문의 차원으로 옮겨 승화시켰다. 이 점에서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적 작업이 아니라 삶에서 솟아오른 사유이다”²⁰⁾ 최근에 대학가의 동성애 서클이나 PC통신의 공개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그들의 소식지를 읽다가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로 인한 각종 질병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을 말하는 것을 읽을 때는 푸코의 투병과 몸부림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가혹하리만큼 단호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정상적이지 못한 사악하고 가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룻의 시대에 소돔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단지 ‘친해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관, 즉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했는데 그들이 맺고자 원했던 성적인 관계는 동성애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당시에는 최고의 ‘손님접대 방법’이라고 우기지만, 성경은 그것을 아주 “사악한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창세기19:5; 베드로후서2:7; 유다7) 바울 사도는 동성애자들을 경고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로 분류했습니다.(고린도전서6:9) 그렇다고 하여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과잉하지 않는다면 일탈도 괜찮다?

성이 개방된 푸코의 파라다이스는 과연 그가 말하는 “지고한 행복”이 넘치는 세상일까요? 푸코는 성담론에 대한 억압이 제거된 사회는 쾌락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처럼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코는 그런 사회가 잿더미가 된 쾌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나 폼페이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돔과 고모라나 폼페이가 성담론이 다양하지 못해서 멸망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멸망을 피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푸코가 제시하는 비결은 ‘자기에의 배려’ 즉 ‘쾌락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푸코는 그리스 사람들이 천박한 성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규칙들을 개발했던 것처럼 자아에 대해 극도의 자기 절제에 이르게 되는 훈련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푸코는 누구보다도 성의 절제와 과잉을 주시했는데, 그것은 섹스에 탐닉하는 우리 시대를 위해

아주 중요한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는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섹스보다도 결혼 관계 내에서의 ‘과도한 섹스’를 문제시켰습니다. 레흐트(John Lechte)도 푸코가 “섹스의 과잉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푸코의 문제는 절제만 잘 한다면 결혼 밖이든지 안이든지,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상관없이 누구와도 섹스가 가능하다는 말에 있습니다. 즉 ‘과잉만 하지 않는다면 일탈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말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푸코의 주장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는 성 윤리에 대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을 거부했다. 그들은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정초(定礎) 해 줄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신의 존재를 거부했다. 그 결과는 삶의 권태와 성적인 따분함뿐이었다. 그 권태를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원시적이고 신비적인 주술에 빠지는 것과 이웃 여자와 미소년들을 남자들의 쾌락의 제물로 삼아 그들의 정조를 편리하게 유린하는 것이다. 모든 남자들은 그런 시대가 돌아오기를 꿈꾼다.”

만약 푸코의 파라다이스가 도래한다면 그 나라는 성도착 환자들의 나라일 것이며, 그런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원시적 인간으로의 퇴행을 자초하는 것일 것입니다. 플라톤처럼 자녀출산을 위해서는 아내를 두고 사랑을 위해서는 애인을 두는 이중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삶을 꾸리는 것이 부도덕하고 퇴행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푸코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자기배려의 정교화 혹은 삶의 기술”²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가 말하는 자기배려의 정교화는 철저히 자기 파괴로, 삶의 기술은 성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파라다이스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성의 퇴행이고 자기 파멸이었습니다. 제임스 밀러(Miller)는 참담했던 푸코의 생애 마지막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에서 푸코는 완전히 가학피학성 변태(S/M)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푸코는 에이즈(AIDS)를 하나의 한계 체험으로 여기고 있었다. 대부분 이미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동조자들과 함께 어찌면 자멸을 초래하게 될 걱정적 행위에 탐닉하고 있었다. 스스로 경고를 무시한 채 푸코와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투기하고 있었던 것이다.”²²⁾

스크러턴(Gorger Scruton)은 푸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푸코는 현대 무신론자들 중 사라진 하나님의 부재로 남겨진 가상의 갭을 메우기 위해 비 이성의 신비성을 사용하려 노력한 일종의 열정적인 이교주의자였던 것이다.”²³⁾ 하버마스(Harbermas)도 잘 지적했습니다. “그들(해체주의자들)은 근대 세계 바깥으로 도피하며, 자신들의 화해 불가능한 탈 현대성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멀고 먼, 원시적이고 능동적인 상상의 힘과 자기표현과 감정의 영역으로 퇴행하고 있다. 도구적 이성 대신에 그들은 마니교적인 방식으로, 신비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원리들을 주장하고 있다.”

푸코가 이성과 전통을 해체하고 찾아낸 것은 어리석게도 광기 어린 퇴행과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원시적이고 신비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문화현상은 비단 성담론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의 전반적인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사랑과 영혼’, ‘해피 투게더’가 그렇고, 그림에서는 고갱의 하이티 작품들과 서정태의 ‘푸른초상’ 시리즈가 그렇습니다. 외계인이나 죽은 영혼과 동성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은 모두 인간을 퇴행으로 이끌거나 비인간화를 촉진시키는 자기 기만적인 것들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 종교이다?

푸코는 우리 시대의 성 윤리가 규정화 되고 엄격하게 된 근본 원인을 기독교적인 세뇌와 각인에 의한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윤리가 플라톤이 살던 고대 사회의 성 윤리보다 더 억압적이며 비 개방적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가 금욕주의(asceticism) 담론을 취한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²⁴⁾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 교부철학자 어거스틴을 드는데, 유명한 [신의 도성](De civitate Dei)에서 어거스틴은 죄악으로 가득찬 상태에서의 섹스는 자기 통제의 상실로 보았기 때문에 타락한 욕망에 대한 고통스럽고 비판적이고 억압적인 성찰을 끊임없이 촉구했으며 하물며 “성교를 끄찍한 경련이며 지독한 경련에 의한 신체의 움직임”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푸코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18세기 이래 성욕을 갖고 있었고 19세기 이래 섹스를 갖고 있었다. 우리가 그 이전에 가졌던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신체뿐이었다.”²⁵⁾ 이것은 푸코가 1977년 1월에 르몽지에서 밝힌 입장과도 동일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부담스러운 유산은 섹스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²⁶⁾ 거기에 대해 20세기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토틀(John R.W.Stott)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선조들은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금욕주의적 경향의 역사로 인정합니다.

혼인을 금하거나 먹는 것과 세상살이 자체를 멀리하는 금욕주의는 초대교회가 싸워야 했던 잘못된 영성이었습니다.(골로새서2:20-23) 초대교회나 어거스틴이나 빅토리아 시대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금욕주의적인 성생활을 기독교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푸코만 타타기는 어렵지만, 그가 비난하는 금욕주의는 유대기독교의 성경이 주장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서양교회의 오해는 주로 물질과 육체를 천하게 여기는 이원론 때문에, 한국교회의 오해는 유교의 위선과 불교의 금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푸코도 기독교적 전통(여기서 그가 말하는 기독교적 전통은 주로 천주교를 말한다)과 성경의 성 윤리 사이에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성경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종말론적 문화 현상을 엄히 경고하기는 하지만(디모데후서3:1-5), 그렇다고 해서 결코 쾌락을 무턱대고 억압하거나 반대하여 금욕주의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이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창세기2:18-25; 고린도전서 7:1-7) 그러나 성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쾌락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 동시에 섬김과 교제, 위로의 방편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적인 관계는 가장 강한 육체적 쾌락이며 이 쾌락은 삶의 긴장을 풀어 주는 최선의 방법이다”(Sylvanus M. Durall)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성적인 표현을 통하여 사랑과 친밀감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그것 뿐만 아니라 긴장 해소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결코 성경은 성이 영성과 대립되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금욕주의를 부추기지 않습니다.(사무엘상1:19,20; 아가2:6-15)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일하던 교회에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디모데전서4:3)고 한 사람들을 향하여,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디모데전서4:2)고 단정지었습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인적이고 부정적인 영성입니다.

성에 대해 수다스럽게 말해야 한다?

푸코는 불건전한 성 지식과 성 희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모든 지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고 올바른 성 지식을 배우기도 전에 온갖 지저분한 성 지식은 포르노 비디오투를 보는 것 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푸코의 책을 읽는데는 고도의 철학적인 사색과 지적 사고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온갖 성적 충동에 노출되게 합니다. 어떤 묘사는 섹스 교본에 버금잡니다.²⁷⁾ 푸코는 쾌락과 본능을 철학적 미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보다 충격적인 것은 푸코가 “이제는 성에 대해 수다스럽게 말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주체적인 성담론의 유통이 확산되면 성의 자유화가 증대될 것”²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누구나 푸코의 제자들이 된 것인지, 제법 점잖은 사람까지도 야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은 예사이고, 권위 있는 일간지나 잡지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다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코메디에서 성이 추잡스럽고 더러운 농담과 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 상품화도 심각합니다.

푸코는 갓지만 그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넓고 심각합니다. 운동권에서는 ‘사랑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푸코 식의 성해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어느 정신의학자라는 유부녀와 놀아나는 남편을 “다차원적인 사랑으로 관용하고 맞바람을 피우라”고 상담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모 대학에서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위한 성교육 책을 냈는데, 거기에는 각종 피임법 소개와 동성애에 대한 동조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잘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위의 이야기 못지 않은 온갖 성적 불장난과 상품화가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희롱과 농담을 금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존 스토틀(John R.W. Stott)는 그의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기독교가 성희롱을 미워하고 피하라고 하는가 하면, 푸코가 말한 것처럼, ‘성은 죄’라는 왜곡된 견해 때문도 아니고 성이 부끄럽거나 두려워서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는 정당한 위치로서의 성에 대한 고상하고 거룩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성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감사의 대상이지 농담의 대상이 아니다.”²⁹⁾

성담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을 농담과 희롱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섹스라는 기호로 글을 쓰는 것은 좋으나, 섹스를 필요 이상으로 수다스럽게 떠들거나 조롱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상업적 목적이나 공명심으로 사적인 성 행위를 남에게 공개하거나 부풀리거나 떠벌리는 것은 모두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추락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성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개인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간음 행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자신을 음란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금해야 합니다. 바울은, 푸코가 텍스트로 삼았던 바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에베소서5:3,4)

푸코의 성담론은 한마디로 악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던지는 도전까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푸코는, 1)은밀한 주제로 치부되던 성의 문제를 철학적 토론 주제로 상정했습니다. 2)성이 현대인들

의 윤리 의식과 직결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3)그 동안 숨겨져 있던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의 성 지식과 행위를 현대인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4)양생술의 일부 정보는 현대 성 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5)푸코의 비판 대상이 된 기독교가 성경적인 성담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눈뜨게 했다는 것 등입니다.

그러므로 성담론 자체를 무조건 금기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푸코의 성담론처럼 잘 못된 성담론을 경계하고 비판하면서도, 자녀출산 못지 않게 부부사이의 성적 쾌락과 연인 사이에 지켜야 할 아름다움과 동성애의 해악 등, 성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코가 텍스트로 삼았던 고린도 지방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제시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성담론을 정리해 봅시다.(고린도전서7:2-5)

1)독신은 결코 미완의 인생이거나 바보들의 선택이 아니라 고결하고 거룩한 인생살이의 한 길이며 성령의 은사입니다. 2)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안에서만 성적 쾌락을 누려야 합니다. '나홀로 섹스'나 혼전, 혼외 섹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3)남편과 아내는 서로간에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4)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배우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5)합의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성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혹은 특별사유로 합의 상 분방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의 원칙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배우자를 마귀의 유혹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M.Foucault, 성의 역사 1,2,3, 나남출판사, 1994 제1권 푸코는 [삶의 의지]를 1976년에 초판을 내놓았다가 그 후 8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1984년에 [쾌락의 활용]과 [자기에의 배려]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1990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는데 세 권에 약 8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입니다.

2) 쾌락의 활용, p.18

3) 삶의 의지, p.93

4) 메르키오르, 위의책, p.202 쾌락의 활용"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정신적 쾌락주의자들의 쾌락 추구적 용어인 '쾌락의 활용(chresis aphrodision)'에서 그대로 빌려온 것입니다.

5) 메르키오르, 앞의책, p.211 "자기에의 배려"란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 '너 자신을 알라(epimeleia heautou)'의 번역어이며, 라틴어로는 '자기의 관심(cura sui)'입니다.

6) 쾌락의 활용, pp.126-133

7) 자기에의 배려, pp.167, 172, 188-191, 198-201

8) 자기에의 배려, pp.17-52

9) 메르키오르, 앞의책, p.218

10) Gary Gutting, M.Foucault's Archaeology of Scientific Reason, PP.287-288

11) 김재현, 푸코의 연구방법과 권력이론에 관하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참고 103인의 현대사상, p.657

12) 쾌락의 활용, pp.267, 268

13) 자기에의 배려, p.262

14) 메르키오르, 푸코, 시공사, p.192

15) 윤희영, 윤희영, 윤혜준, 정문영 공저, 주체 개념의 비판(서울대출판부), p.179

16) 자기에의 배려, p.142

17) 쾌락의 활용, pp.205-207

18) 자기에의 배려, p.252

19) Lois McNay, Foucault a Critical Introduction, Polity, pp.98,99

20) 103인의 현대사상, p. 658

21) 자기에의 배려, p.260

- 22) 라브리를 찾아왔던 한 청년이 두고간 논문, '신이 죽고 난 뒤의 삶, 미셸 푸코와 포스트모던의 무신론'에서 인용함
- 23) 위의글
- 24) 쾌락의 활용, pp. 28, 51, 266; 자기에의 배려, pp.257-262
- 25) 베르키오르, 위의책, p.199
- 26) J.Stott, The Message of Ephesians, IVP, pp.192-193
- 27) 자기에의 배려, pp.148-151 예를 들어, 성행위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까지 제시하는데, 플루타르쿠가 [식탁의 담화]의 한 편에서 언급하는 종교적 동기들뿐만 아니라 섹스는 운동과 식사와 소화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 직전에는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정사 후에는 회복을 위한 목욕과 마사지를 권하고자 한다" 등이 나옵니다. 요즘 철학은 이렇게 섹스 교본이나 성의학 책처럼 미세담론에 치우쳐 있습니다.
- 28) 윤희녕, 윤평중, 윤혜준, 정문영 공저, 앞의책, p.174
- 29) J.Stott, The Message of Ephesians, IVP, pp.192-193